

二等 開口 喉牙音字 중 i-介音의 來源 고찰

鄭 榮 芝*

<目 次

- | | |
|--------------|--------------|
| I. 서 論 | 2. 中古 二等字 介音 |
| II. 본 論 | III. 결 論 |
| 1. 上古 二等字 介音 | |

I. 서 論

‘等’은 漢語等韻學에서 字音을 분석하는데 표준과 원칙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등의 개념은 唐대에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등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음운학계에서는 淸代학자 江永선생의 “일등은 매우 크며, 이등은 다음으로 크며, 삼사등은 모두 약한데, 사등은 더욱 약하다.(一等洪大, 二等次大, 三四皆細, 而四尤細).”라는 이론을 주로 따르고 있다. 강영선생은 등을 설명하는데 洪細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韻母를 발음할 때 開口度의 大小와 혀 위치의 前後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18세기 북방음에 근거하여 주장한 것이어서 切韻시기나 韻圖가 만들어진 시기의 등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다.¹⁾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1) 일부의 음운학자들은 反切上字의 분류에 근거하여 一二等은 洪音이며 어떤 介音도 지니지 않는다고 여긴다. 高本漢 역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는 《中國音韻學研究》에서 東一을 Cuy로 江을 Cy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y의 개구도는 u에 비해 더 크므로 江韻의 Cy는 東韻의 Cuy에 비하여 더 크게 된다. 이와 같다면 ‘一等洪大, 二等次大’의 이론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一等과 二等, 三等과 四等 간에 공통된 개음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절운》의 反切上字의 분류를 통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一等·二等·純四等이고, 다른 하나는 三等이다. 삼등자에는 顎介音이 있고, 전자에 속하는 일등자에는 약개음이 없으며 순사등도 《절운》시대에는 약개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음운학자들이 이 결론에 입각하여 미루어 추측하여 이등자에도 어떤 개음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등자에 약개음이 없다고 하여 다른 유형의 개음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一等에 i-介音이 없으며 개구도가 가장 크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二等에 개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석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高本漢先生은 일찍이 중고한어 이등자에 약한 i-개음이 있다고 여기다가 후에 Maspero의 수정을 받아들여 약한 i-개음을 취소하였다²⁾ 이후로 학자들은 대부분 이등자에 개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二等은 중고시기에 최소한 喉音과 牙音에 輔音性 개음이 있으며³⁾, 오히려 四等은 원래 어떤 개음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절운》에서 순사등의 후음과 아음은 늘 일등자로 반절상자를 삼고 있으나, 《集韻》에 오면 주요원음 앞에 i-개음이 생겨 사등자로 반절상자를 삼고 있다. 이와 같다면 《절운》시기에 一等과 二等, 三等과 四等 간에 공통된 개음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中古이후에 이등 喉音과 牙音에는 i-개음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明清代의 일부 운도에는 후음과 아음 이외에 脣音과 齒音에도 i-개음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浙西방언에 속하는 遂昌방언·浦江방언·武義방언 등에도 이등 순음자에 i-개음을 갖고 있다.⁴⁾ 이와 같다

(許寶華·潘悟云, <釋二等>, 《音韻學研究》3(1994. 4), 119쪽 참조)

2) 高本漢, 《中國音韻學研究》(北京: 商務印書館, 1995. 3), 477-478쪽 참조.

3) 鄭張尙芳·許寶華·潘悟云 등의 학자들은 중고시기에 상고음의 -r-개음에서 약화된 보음성의 개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4) 許寶華·潘悟云, 앞의 논문. 그 예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遂昌方言 (烹 文讀 phəŋ / 白讀 phiaŋ, 彭 baŋ / biaŋ, 盲 məŋ / miaŋ, 猛 məŋ /

면 이등 후음과 아음이 주요원음 -a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화된 후에 i-개음이 생겼다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중고이후에 이등 개구 喉音과 牙音字에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는 i-개음의 來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上古 二等字 介音

상고한어에 複輔音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일찍이 많은 학자들이 諧聲체계와 漢藏계언어의 비교 등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⁵⁾ 雅洪托夫는 진일보하여 二等字와 來母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근거를 통하여 중고의 이등자는 상고에 모두 -i-복보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견해는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또 一等字와 來母는 諧聲관계가 없다고 여겼으며⁶⁾, 상고한어 중 일등자와 이등자 사이의 구별은

miaŋ, 迫 piʔ / phiaʔ, 百 pɛʔ / piaʔ, 拍 phɛʔ / phiaʔ, 白 bɛʔ / biaʔ, 陌麥 mɛʔ / miaʔ, 浦江방언(巴 pia, 爬 bia, 麻 mia, 八 pia, 拔 bia), 衢州방언(爬 bia, 麻 mia, 馬 mia), 武義방언(排 bia, 拜 pia). 이 외에도 어떤 일부의 방언에서도 이 현상이 보이고 있다. 太原방언(迫 phiaʔ, 白 piaʔ, 伯 piaʔ, 百 pieʔ), 太谷방언(百 pia, 拍 phia, 白 pia), 大同방언(百 pia, 拍 phia, 白 pia), 廣西伶話(八 pia).

5) 高本漢 《漢語詞類(Word Family in Chinese)》, 林語堂《語言學論叢》, 董同龢《上古音表稿》, 陸志韋《古音說略》등.

6) 雅洪托夫도 일찍이 來母字와 소수의 一等字 사이의 諧聲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이러한 현상은 모두 후기에 생긴 것이라고 보아, 둘 사이에는 해성관계가 없다고 여겼다. 예컨대 그가 말하길: “‘畚’은 ‘洛’의 聲旁이고 一等이지만, 처음에 글자를 만들 때 ‘오다(來)’의 뜻인 이등자 ‘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즉 ‘畚’은 ‘格’의 本字가 된다. 그러므로 고음은 이등이지 일등이 아니다.; ‘裸’는 비록 일등자인 ‘果’를 聲旁으로 하지만 ‘裸’는 후기에 생긴 글자이고, 《說文解字》에 의거하면 처음에는 ‘羸’자로 썼었다. ‘谷(kuk) 일등자도 후기에 생긴 글자이며 대부분 자전에서 ‘luk’이라는 또 하나의 소리로 발음하였다.”고 했다. (雅洪托夫, <上古漢語的複輔音聲母>, 《古

이등자에는 개음 -l-이 있고 일등자에는 어떤 개음도 없는 점이 있다고 여겼다. 그는 來母를 l-로 재구하여 상고 이등자는 *⁷⁾Cl-이 된다고 여겼다.⁸⁾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일등자도 來母字와 해성관계를 갖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咎(古勞切) - 縉, 乎(戶吳切) - 呼, 悞(苦回切) - 里, 潑(匹各切) - 樂, 可(枯我切) - 呵, 颯(蘇合切) - 立, 目侖(古困切) - 倫⁹⁾ 등은 전자는 모두 일등자이고, 후자는 來母字이다. 이와 같다면 일등자도 -l- 복성모를 갖게 된다. 이러한 예들은 그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包擬古 역시 漢藏系언어의 비교와 諧聲계통을 통하여 이등자와 來母字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상고의 來母字를 r-로 재구하여, 이등자 복보음을 *Cr-로 보았다.¹⁰⁾

李方桂선생은 상고이등자의 -r-개음은 舌尖성모를 권설음화 시키고, 원음을 中央化(centralization)하는 작용이 있으며, 삼등개음 j-앞에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고이등자는 Cl-이 아니고, *Cr-이라고 재구하였다.¹¹⁾ 鄭張尙芳선생 역시 상고음에 보음성 개음 -r-이 존재한다고 여겼으며, 陸志韋·趙克剛·施向東·潘悟云·許寶華 등의 학자들이 모두 상고음의 -r-개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필자도 상고음에 보음성 개음 -r-이 존재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漢書》에 Alexandria를 ‘烏弋山離’로 음역하였는데, 만약에 來母字가 l-이었

漢語復聲母論文集》(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3), 300쪽 참조.)

- 7) ‘*’는 상고음의 재구를 나타낸다.
- 8) 雅洪托夫, <上古漢語的復輔音聲母>, 《古漢語復聲母論文集》(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3)
- 9) 悞(良士切, 憂也), 潑(盧各切), 目侖(盧本切)은 又讀으로 來母字의 變體도 갖고 있다.
- 10) 包擬古(N. C. Bodman), 《Proto-Chinese and Sino-Tibetan》, 許寶華·潘悟云 <釋二等>과 張世祿·楊劍橋 <論上古帶·復輔音聲母>, 《古漢語復聲母論文集》(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3)에서 재인용.
- 11) 李方桂, 《上古音研究》, (第3版; 北京: 商務印書館, 1998. 5), 21-27쪽.

다면 ‘lek’을 음역할 때 래모자를 사용했을 텐데 ‘ㄱ’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Vaidurya를 ‘璧流離라고 음역하였는데, 래모자 ‘離로 rya를 음역하고 있다. 일본이 가나를 만들 때 래모자로 r-음을 만드는 재료로 삼았으며, 한자의 音讀 중에도 r-로 래모자의 독음을 삼았다.¹²⁾ 이러한 예들로 미루어 보아 상고음에서 래모자를 r-로 재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상고이등자와 래모자의 밀접한 관계를 몇 가지 자료를 통하여 살펴해보도록 하자.

(1) 諧聲系統

이등자와 래모자의 밀접한 관계는 해성계통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해성계통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二等字	來母字
膠 [k]	廖寥
監鑑 [k], 檻 [ɣ]	藍藍濫覽檻
格 [k]	路洛烙絡略落露絡
隔 [k]	鬲
降 [k]	隆
束諫揀 [k]	闌練煉棟
埋羸羸 [m]	里狸理鯉
龐 [b]	龍
蠻 [m], 彎 [o]	戀戀戀戀戀
剝 [p]	錄
卯昴 [m]	柳留聊
數(所角切) [ʃ]	婁婁屢婁婁婁婁
巷 [ɣ]	弄
麥 [m]	來萊賚
革 [k]	勒

12) 일본이 가나를 만들 때가 중국의 당나라시대에 해당하는데, 漢字 漢音이 일본에 들어간 것은 훨씬 이르다. 그리고 吳音漢音 중에도 래모자는 모두 r로 발음하고 있다. (施向東, <上古介音與來紐>, 《音韻學研究》8(1994. 4), 249 쪽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見母의 이등자 ‘膠’와 래모자 ‘廖寥, 見母의 이등자 ‘監鑑’과 匣母의 ‘檻’이 래모자 ‘藍藍濫覽檻’과 각각 해성하고 있다. 見母의 ‘格’과 래모자의 ‘路洛烙絡略落露駱’, 見母의 ‘隔’과 래모자의 ‘鬲’, 見母의 ‘降’과 래모자의 ‘隆, 見母의 ‘東諫揀’과 래모자의 ‘闌練煉棟’이 각각 해성하고 있다. 明母의 ‘埋霾隄’와 래모자의 ‘里狸理鯉, 並母의 이등자 ‘龐’과 래모자 ‘龍’, 明母의 ‘蠻’과 影母의 ‘彎’이 래모자 ‘纒纒戀鸞纒’과 각각 해성하고 있다. 幫母의 ‘剝’과 래모자 ‘錄, 明母의 ‘卯昫’와 래모자 ‘柳留聊’, 生母의 ‘數’와 래모자 ‘婁婁屢樓樓樓樓樓’, 匣母의 ‘巷’과 래모자 ‘弄’, 明母의 ‘麥’과 래모자 ‘來萊賚, 見母의 이등자 ‘革’과 래모자 ‘勒’등이 각각 해성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상고 이등자와 래모자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만약 이등자 상고음 성모가 單聲母라면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등자 상고음의 성모와 운모사이에 -r- 개음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래모자는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등자가 아닌 글자들과도 해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莒:居許切(三等) - 呂:力舉切 蘇:素姑切(一等) - 魯:郎古切, 多:各:下各切(一等) - 洛:盧各切 兼:古聒切(四等) - 廉:力鹽切, 陸:莫六切(三等) - 陸:力竹切 등이 있다. 하지만 소수인 만큼 이등자 상고음의 재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예들의 구체적인 분석 문제는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2) 又讀

해성관계를 통하여 상고이등자와 래모자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又讀의 예를 통하여서도 그 관계를 엿볼 수 있다. 又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³⁾

13) 위에서 사용한 諧聲계통의 자료와 又讀의 자료는 상고음 이등자에 -r-개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문에서 취하여 종합 정리하였다. 상고 이등

K C I

자에 -r-개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자료를 통하여 증명
한 만큼 본 논문에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
여 살펴보는데 그 의의를 둔다.

角：《廣韻》古岳切，又讀 盧谷切
 淪淪：《廣韻》力連切，又讀 古頑切
 揀：《廣韻》古限切，又讀 郎旬切
 月尚：《廣韻》古娃切，又讀 落戈切
 樂：《廣韻》五角切，又讀 盧各切
 犛：《廣韻》莫交切，落哀切 里之切
 瀧：《廣韻》所江切，又讀 呂江切
 寥鳥：《廣韻》力救切，又讀 武彪切 莫浮切
 鬲：《廣韻》古核切，又讀 郎擊切
 羹：《廣韻》古行切，又讀 盧當切
 龐：《廣韻》薄江切，又讀 盧東切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등자와 래모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角揀月尚鬲羹은 見母의 반절상자와 래모의 반절상자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淪淪은 래모의 반절상자와 견모의 반절상자를 동시에 갖는 반절을 지니고 있다. ‘樂은 疑母의 반절상자와 래모의 반절상자, ‘犛寥鳥는 明母의 반절상자와 래모의 반절상자, ‘瀧은 生母의 반절상자와 래모의 반절상자, ‘龐은 並모의 반절상자와 래모의 반절상자를 동시에 갖는 반절 있다. 만약 상고 이등자 성모를 -r-개음을 갖는 Cr-로 재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설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고서 속의 훈고자료 가운데도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 劉熙의 《釋名·釋水》에 이르길 “물이 곧게 나오는 것을 濫泉이라 한다. 濫은 銜이다. 예컨대 사람의 입에 머금은 바가 있으면 입을 연즉 보인다.(水正出曰濫泉, 濫, 銜也. 如人口有所銜口闔則見也.)”라고 했다. 여기서 濫은 銜을 새기는 것이고, 또 濫은 監을 聲旁으로 삼고 있다. 《詩經·召南·行露》중의 ‘昴’지는 毛傳에 ‘昴는 留이다(昴, 留也.)’하였다. 《春秋元命苞》에 이르길 “昴는 留를 말하는 것으로, 사물이 이루어지면 붙잡아 매어두는 것을 말한다.(昴之爲言留, 言物成就繫留是也)” 또 《史記·律書》에서 이르길 “北으로는 留에 이른다. (北至於留)”라 했고, “즉 卯자이다(卽卯字)”라

고 注하였다. 明代의 楊貞一은 《詩音辨略》卷上에서 “卯”는 鼻의 省文이거나 傳寫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鼻’는 달리 留音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留’는 실제로 또한 ‘鼻’의 다른 이름이다. ‘鼻’가 ‘留’로 읽히면 뜻도 통하고 韻도 서로 화합한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예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고 이등자를 단성모로 재구한다면 쉽게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등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래모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許寶華·潘悟云선생의 조사에 의하면 《설문해자》에 단지 래모를 가진 이등자는 3개뿐이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冷’자는 常用字이지만, ‘犖, 酉僉’자는 비상용자라는 것이다. 이 역시 상고 이등자의 성모를 단성모로 재구할 경우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상고음 속의 이등자와 래모자의 밀접한 관계를 해성관계·又讀·훈고자료 등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상고 이등자는 단성모로 발음했던 것이 아니라 -r-개음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中古 二等字 介音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고 이등자 속에 -r-개음이 존재하였다는 것에는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상고 이등자안에 존재하던 개음이 중고음 이등자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중고시대 이등자에 과연 개음이 존재하였나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송대 이후에 후음과 아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i-개음의 來源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 이등 개구자의 개음문제에 있어서는 개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간에도 이론이 분분하다. 雅洪托夫선생은 상고 이등자의 개음 -r-이 먼저 반자음 혹은 -e-로 변했다

14) 李新魁, 《漢語音韻學》(北京: 北京出版社, 1986), 411-413쪽 참조.

15) 許寶華·潘悟云, 앞의 논문, 121쪽.

가 《절운》시대에 소실되었으며, 후에 가서 개음 i-가 다시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鄭張尙芳선생은 이등자의 개음이 상고 -r-개음에서 중고 시대의 w-개음이 되는데 중간 단계로 ɾ-를 거쳤으며, 후음과 아음에 존재하는 i-개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또 중간단계로 i-를 거쳤다고 보고 있다.¹⁷⁾ 許寶華·潘悟云선생 등은 이 견해에 뜻을 같이 하여 중고 이등자에는 w-개음이 있는데, 이는 상고의 -r-개음에서 변하여 온 것이며, 이등 후음과 아음에 존재하는 i-개음이 바로 w-개음에서 변화하여 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¹⁸⁾ 趙克剛선생은 등운학과 ‘古本漢의 관점에서 출발해 중고의 이등자 개음은 권설의 -r-이라고 보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은 상고 이등자의 개음 -r-로부터 현재 이등 개구 아음과 후음자에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는 개음 i-에 이르는 과정에 보음성 개음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자 역시 상고음의 개음이 중고음 시대에 소실되었다가 다시 생겨났다고 본다면 이등자 개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共同語의 讀書音계통을 반영하고 있는 《韻法直圖》《韻法橫圖》《四聲經緯圖》²⁰⁾(이후로 《직도》《횡도》《경위》라 부른다.)에

16) 雅洪托夫, 앞의 논문.

17) 鄭張尙芳, 앞의 논문.

18) 許寶華·潘悟云, 앞의 논문. ‘w’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w’는 불원순의 후설모음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늘 안정적인 모음으로 발전하려 한다. 그래서 w의 혀 위치를 조금만 앞으로 하면 i로 변하고, 혀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입술을 모으면 u가 된다. 知組와 莊組 성모 하에 w가 u로 된 후에 顎音성모의 영향을 받으면 -y-로 변한다. 그리고 w 뒤 모음의 개구도가 비교적 크고, w의 개구도 역시 커지면 뒤의 원음과 합하여 하나의 개음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禿介音이다.

19) 趙克剛, <四等重輕論>, 《음운학연구》3(1994. 4), 42-48쪽. 그러나 趙克剛선생이 언급하고 있는 二等字는 운도에서 이등에 배열되어 있는 모든 글자를 말하는데, 물론 《切韻》 三等운의 莊組에 해당하는 글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20) 《韻法直圖》는 작자를 알 수 없으며, 安徽사람 梅膺祚가 萬曆 40년(1612년) 新安(지금의 安徽 歙縣)에서 얻었다. 《韻法橫圖》는 南京 上元(지금의 江蘇 江寧)사람 李世澤이 지은 것으로(1614년 이전에 지어짐) 原名은 《切韻射標》이다. 梅膺祚가 이 운도를 《字彙》뒤에 실으면서 《운법횡도》라고 고쳤다

보이는 중고 이등 개구에서 온 글자들의 개음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浙西방언 속의 이등 개음을 참조하여 중고음 이등 속에 개음이 존재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도》《횡도》《경위》에는 開口呼·合口呼·齊齒呼·撮口呼·閉口呼·齊齒捲舌呼·舌向上呼·混呼 등의 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전자 네 가지 呼의 어음함의는 현대한어의 어음함의와 같다. 폐구호는 폐구운미로 인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呼法은 필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고 이등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먼저 세 운도의 중고 이등 개구에서 온 글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이등개구자	《직도》 / 《횡도》	《경위》
江攝脣音(宕攝일등자와 섞임)	岡韻(平入개구호·上去混呼)/《횡도》에는 이등자 없음	
梗攝喉牙脣齒音(曾攝일등자와 섞임)	庚韻(개구호)/庚韻(개구호)	庚韻(개구호)
江攝齒音(宕攝일등 삼등합구와 山攝일등자와 섞임)	光韻/《횡도》에는 이등자 없음	
江攝喉牙脣音(宕攝삼등자와 섞임)/喉牙舌脣·泥母 ²¹⁾	江韻(混呼)/姜韻(混呼)	陽韻(混呼, 중고 이등 江운과 삼등 陽운이 섞임)

이 두 운도는 시대와 음계가 유사하여 자매편이라 불린다. 《직도》와 《횡도》는 明代에 아주 중요한 운도로 이 두 운도를 모방한 운도가 최소한 이삼십여 종은 된다. 그리고 현대 한어의 四呼도 이 두 운도에 보이는 呼法에서 취해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李新輝선생은 이 두 운도가 共同語의 讀書音系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四聲經緯圖》는 《皇極圖韻》의 운도 부분으로 浙江 嘉興사람 陳盡謨가 崇禎 壬申年(1632년)에 편찬한 것이다. 이 운도는 《횡도》의 형식을 모방하고 있으며, 음체계도 위의 두 운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21) ‘/’ 앞부분은 《직도》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뒷부분은 《횡도》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도 이와 동일하다.

蟹攝喉牙齒唇音·來母/ 舌音도 포함	皆韻(제치호)/皆韻(제 치호)	皆韻(제치호)
假攝喉牙音·來母	嘉韻(제치호)/加韻(제 치호)	麻韻(齊齒附合口, 중고 이등 개운 麻운과 합구 麻운이 섞임)
假攝唇齒音·泥母	孃韻(舌向上呼)/加韻 (제치호)	
山攝喉牙齒齒音·泥來 母/舌音도 포함	艱韻(齊齒捲舌呼)/間韻 (제치권설호)	刪韻(제치권설호)
咸攝喉牙齒齒音·泥來 母/舌音도 포함	監韻(齊齒捲舌而閉)/監 韻(제치권설이폐)	覃韻(폐구호, 《횡도》 의 甘운과 監운에 해당 하는 글자들이 섞임)
效攝喉牙齒齒音·泥母	交韻(제치호)/交韻(제 치호)	豪韻(개구호, 중고 이등 肴 운과 일등 豪운이 섞임)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세 운도 속의 중고 이등 개구자에서 온 글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개음이 있으며, 개음이 없는 경우는 소수임을 알 수 있다. 中古 梗攝 이등 개구자에서 온 것은 세 운도에서 모두 개구호로 현대음과 기본적으로 같으며, 《직도》에서 江攝 唇音도 평성과 입성은 개구호로 현대음과 같다.

岡운 上去聲과 江운(姜운·陽운)은 混呼이다. 혼호의 개념은 아주 모호하며, 이 세 운도에서도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岡운 상거성은 중고 宕攝 일등에서 온 唐운과 중고 江攝 이등에서 온 순음자로 이루어져 있다. 江攝 이등에서 온 순음자를 江운에 넣지 않고 岡운에 넣은 것은 아마도 《직도》에서는 이 글자들의 개음, 원래 이 개음은 제치에 가까운 권설음색을 띤 개음이었으나 매우 약하여 이미 소실되어 宕攝 일등자와 독음이 같아진 것으로 보인다. 岡운 상거성이 혼호인 것은 개음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光운 속에 있는 글자 ‘黨當蕩宕榜滂莽葬臟喪朗浪’ 등이 岡운에도 함께 있어 두 운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인 것 같다. 江운은 중고 宕攝 삼등에서 온 글자들과 江攝 이등에서 온

喉音·牙音·脣音으로 되어 있다.宕攝 삼등에서 온 글자는 제치호이고,江攝 이등의 후음·아음·순음에서 온 글자들은 다른 또 하나의 개음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운에 두 종류의 다른 개음이 있어 混呼라고 한 듯하다.麥耘선생은 明末清初의 馬自援의 《等音》에 姜운(中古陽韻)과 江운(中古江韻喉牙音)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개음에 구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중고 江攝 喉牙音에서 온 글자들은 권설의 음색을 띠면서 동시에 제치호에 가까운 개음이라고 보고 있다.²²⁾

중고 江攝 齒音 이등에서 온 글자들은 《직도》에서 합구로 읽힌다. 이 현상은 송대의 《四聲等子》에서 이미 그 발단을 찾을 수 있다.

皆운과 交운은 제치호인데 喉音과 牙音뿐만 아니라 齒音·脣音·舌音, 泥母와 來母의 글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대음과 다르다. 그러나 嘉운도 제치호인데 단지 후음과 아음·래모의 글자들만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艱운과 監운은 《직도》에 아직 -m운미가 존재하여 두 호로 나눈 것이다. 이 운도보다 이백년 뒤에 만들어진 崇鳳威의 《橫切五聲圖》(1843년) 중에는 폐구운미가 소실되어 이 두 운을 합하여 하나의 운으로 만들고 艱운이라 하였다.²³⁾ 趙蔭棠선생은 《中原音韻研究》에서 언급하길 권설은 ‘知照日’ 등에 속하는 글자를 위한 것이고, ‘見曉(아음과 후음)’에 속하는 이등자는 구개음화된 후에 제치로 변하여 《직도》를 만든 사람이 이 변화를 감지하여 제치권설호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²⁴⁾ 이로 미루어 보면 제치권설이란 제치와 권설의 음색을 동시에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擎운은 舌向上呼인데 그 호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擎운은 원래 입성이 없는데 圖 뒤에 ‘入聲如艱韻’이라는 주석이 있다. 이로써 擎운과 艱운의 개음과 주요

22) 麥耘, <<韻法直圖>>中二等開口字的介音>, 《音韻與方言研究》(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95. 4), 195-197 참조.

23) 李新魁·麥耘, 《韻學古籍述要》(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3), 301-304쪽 참조.

24) 趙蔭棠, 《中原音韻研究》(北京: 商務印書館 1956).

원음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擎운에는 이음과 후음이 없으므로 설향상호는 권설의 개념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다면, 艱·監·擎 세 운은 같은 종류의 개음을 지녔으며, 그 개음은 권설의 음색을 띠면서 동시에 제치호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세 운도 속의 중고 이등 개구자에서 온 글자들의 개음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江攝(脣平入), 梗攝
- i - : 蟹攝, 假攝(喉牙音泥母), 效攝
- i - 25) : 山攝, 咸攝, 假攝(脣齒音泥母), 江攝(喉牙音, 脣音上去)
- u - : 江攝(齒音)

중고 이등 개구자에서 온 글자들이 세 운도 속에서 위와 같이 대부분 개음을 지니고 있으며, 개음을 지니지 않는 경우는 소수임을 알 수 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직도》에서는 艱운과 監운은 喉音·牙音·脣音·齒音字를 포함하는데, 擎운(舌向上呼, 脣音·齒音)에 嘉운(제치호, 喉音·牙音)이 더해진 것에 상당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喉音·牙音·脣音·齒音이 모두 갖추어진 皆운과 交운에 상당한다. 서로 다른 점은 艱과 監운은 개음이 권설의 음색을 띠면서 동시에 제치호에 가까운 i-개음이고, 擎와 嘉운은 脣音과 齒音자들은 개음이 권설의 음색을 띠면서 동시에 제치호에 가까운 i-이고, 喉音과 牙音자들은 i-이다. 그리고 皆와 交운은 모두 i-개음이다. 그러나 《횡도》에서는 擎운의 脣音과 齒音이 오히려 i-개음이고, 嘉운과 합하여져서 加운이 되었다. 그래서 加·皆·交 세운이 모두 제치호가 된다. 이를 통하여 세 운도에서는 중고 이등에서 온 개음이 권설의 음색을 띠면서 동시에 제치호에 가까운 i-에서 i-로 변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음과 이음만이 i-개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도들에는 순음과 치음도 i-개음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여

25) 권설의 음색을 띠면서 동시에 제치호에 가까운 개음으로 잠시 여기에서 i-로 재구하기로 한다.

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중고 이등자에 개음이 있었다는 것을 세 운도에서도 증명해 주고 있다. 만약 중고 이등 개구자에 개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 세 운도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등 후음과 아음에 보이는 i-개음은 주요원음 -a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江운은 -ㅈ으로 -a음을 지니고 있지 않는데도 i-개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許寶華와 潘悟云선생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컨대 太原方言 안의 迫[phiəʔ]·白伯[piəʔ]·百[pieʔ], 太谷方言의 百白[pia̯]·拍[phiæ], 浦江方言의 炒巧[tɕhio] 등이다.²⁶⁾ 위의 예에서 보듯이 太原방언에서 이등자 ‘迫白伯’은 주요원음이 ə이고, ‘百’은 e이다. 그리고 太谷방언에서 이등자 ‘百拍白’은 주요원음이 æ이며, 浦江방언에서 ‘炒巧’는 주요원음이 o이다. 그런데도 모두 i-개음을 갖는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이등 후음과 아음자에 존재하는 i-개음이 -a모음의 영향으로 생겼다는 견해로 설명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위에서 예를 든 방언들 속의 글자들은 더더욱 후음과 아음이 아니라 순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등자에 i-개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예들 속에서 이등 개구자에 존재하는 i-개음은 주요원음 -a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 아니고, 중고 이등자 개음에서 발전해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개구자만으로는 중고 이등 개음이 어떤 성격을 띤 개음이었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에서 예를 든 세 운도에서 이등 합구자에는 u-개음

26) 潘悟云과 許寶華 선생은 遂昌방언·浦江방언·衢州방언·武義방언·義烏방언·太谷방언·大同방언·廣西俗話·建德방언·淳安방언·東陽방언·磐安방언·龍游방언·樂清방언 등을 예로 들어 현대방언 속의 이등자 개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방언들은 대다수가 浙西방언에 속함으로 역사적 來源이 같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방언들이 지니고 있는 개음의 종류에서도 예컨대 浦江방언에는 □-, i-, u-, y- 형식의 개음이 있고, 建德방언에는 □, u-, u-, y- 형식의 개음이 있다 같은 역사적 래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의 논문.

을 제외하고는 다른 개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고 이등자에 존재했던 개음의 성격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예를 든 몇 가지 자료만으로는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통하여 중고 이등자에도 개음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중고 이등자의 개음이 어떤 성격을 지닌 어떤 개음이었을까 하는 문제는 좀 더 충분한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차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지만 필자는 이상의 자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이등 개구 후음과 아음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i-개음이 주요원음 -a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화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상고 이등 -r-개음에서 중고의 이등자에 존재했던 개음을 거쳐 현재의 개음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Ⅲ. 결 론

高本漢 선생이 중고 이등자에 약한 i-개음을 취소한 이래 대부분 학자들은 이등자에 개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이후에 이등 개구 후음과 아음에는 i-개음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明清代의 일부 운도에는 후음과 아음이외에 순음과 치음에도 i-개음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방언 가운데 浙西방언에 속하는 遂昌방언·浦江방언·武義방언 등에도 이등 순음자에 i-개음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예들에서 보이는 현상들을 주요원음 -a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화 되어 i-개음이 생겼다고 간주한다면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상고음에서 출발하여 그 來源을 살펴보았다. 상고 이등자는 諧聲계통과 又讀 그리고 훈고자료 등을 통하여 來母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 통하여 상고 이등자는 단성모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r-개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 이등자에 개음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명청대의 共同語의 讀書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直圖》《橫圖》《經緯》 등 세 운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등자의

개음 상황과 현대 浙西방언 속의 이등자 상황을 통하여 중고 이등자에도 개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위에서 사용한 자료만으로 중고 이등자 개음의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존재여부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대 이등 개구 후음과 아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i-개음은 상고음의 -r- 개음에서 중고 이등 개음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고 이등자에 존재하는 개음의 성격 규명은 차후에 좀 더 많은 자료와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參考文獻 >

- 高本漢, 《中國音韻學研究》(北京: 商務印書館), 1995. 3.
- 麥耘, <《韻法直圖》中二等開口字的介音>, 《音韻與方言研究》(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95,
- 施向東, <上古介音與來紐>, 《音韻學研究》3, 1994. 4.
- 雅洪托夫, <上古漢語的複輔音聲母>, 《古漢語複聲母論文集》(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 李方桂, 《上古音研究》(第3版 北京: 商務印書館), 1998, 5.
- _____, <幾個上古聲母問題>, 《古漢語複聲母論文集》,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 李新魁, 《漢語音韻學》(北京: 北京出版社), 1986. 7,
- _____, 《漢語等韻學》(北京: 中華書局), 1983.
- 李新魁·麥耘, 《韻學古籍述要》(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3.
- 張世祿·楊劍橋, <論上古帶r複輔音聲母>, 《古漢語複聲母論文集》,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 丁邦新, <論上古音中帶的複聲母>, 《古漢語複聲母論文集》,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 趙克剛, <四等重輕論>, 《音韻學研究》3, 1994. 4.

- 趙蔭棠,《中原音韻研究》(北京:商務印書館,1956),
 包擬古,〈釋名複聲母研究〉,《古漢語複聲母論文集》,(北京:北京語言文化
 大學出版社),1998.
 許寶華·潘悟云,〈釋二等〉,《音韻學研究》3,1994.4.
 拙稿,〈《韻法直圖》與《韻法橫圖》研究〉,中山大學博士學位論文,1999.
 ——,〈《四聲經緯圖》音系簡考〉,《中國語文學》40,2002.12.

〈中文提要〉

高本漢先生早期認為中古漢語二等字有一個弱的 i-介音,但後來他自己推翻了這種看法。從此,學者們大都認為中古二等字沒有介音。但中古以後在二等韻的牙音與喉音里,i-介音普遍存在,而且明清時代有的韻圖里連齒音與唇音上也帶有 i-介音。還有現代漢語方言中屬於浙西方言的遂昌方言·浦江方言·武義方言里唇音字也帶有 i-介音。關於官話二等喉音與牙音的 i-介音,許多學者認為是受前低主要元音-a的影響而後來產生出來的。但是江韻不帶主要元音-a,太原方言·浦江方言里的幾個字也不帶-a元音,它們也都產生了 i-介音。那現代二等字的介音到底是從古代的二等介音發展而來的,還是受後接元音的影響產生出來的?

本篇論文著眼這個問題從上古音開始考察其來源。考察其上古來源的主要依據是二等字跟來母字的關係,通過諧聲系統·又讀材料,我們認為二等字在上古音中跟來母字有密切關係。可以這樣說,上古二等字不是單聲母,而是帶-r-介音的復聲母。關於中古二等字里介音存在與否,學者之間的見解差異很大。有的認為不存在介音,有的認為仍然存在介音。本篇論文以反映近代漢語共同語的《直圖》等三個韻圖與現代方言作為材料,可以知道中古二等字里存在某種介音。

주제어: 諧聲系統, 又讀, 二等 開口字, i-介音, 喉音과 牙音